

이재명 네거티브 중단 선언...민주 진흙탕 싸움서 벗어날까

“지금부터 실력·정책논쟁 집중...음해는 당에서 조치해야”
이낙연 “본선 경쟁력 위해 정책과 자질 검증에 주력”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8일 “이 순간부터 실력과 정책에 대한 논쟁에 집중하고, 다른 후보들에 대해 일체의 네거티브적 언급조차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에 이낙연 전 대표도 환영한다는 입장을 표명, 민주당 경선이 네거티브 공방의 진흙탕에서 벗어나 미래 비전을 둘러싼 치열한 경쟁전으로 전환될 것인지 주목된다.

이 지사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 “당 경선 과정에서 격화하는 네거티브 공방에 대해 당원과 지지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네거티브 중단을 전격 선언했다. 이 지사는 이와 함께 “당 후보들께 캠프 상황실장 등 적절한 수준의 상시 소통 채널 구성을 제안한다”며 “후보 간 신상이나 사실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소통 채널에서 먼저 확인 과정을 거쳐 불필요한 의혹 제기와 공방이 발생하지 않게 하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이른바 ‘명낙 대전’으로 불리는 양강 이낙연 전 대표와의 네거티브 공방이 최근 일제적으로 달하면서 당내에서 선거전 과열 우려가 높아지자 일종의 ‘휴전 제안’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이 지사는 “허위사실에 기초한 비방이나 의혹 제기를 방자한 허위사실 유포는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중대 행위”라며 “허위사실에 기초한 음해나

의혹 제기에는 즉각적이고 신속한 대응조치를 취해달라”고 당에 요구했다. 또 “지난 2017년 대선 경선은 원팀 정신의 모범이었다”며 “당시 문재인 후보가 최종 선출되자 저를 비롯한 경선 후보들이 한마음으로 뫼뫼했다. 우리는 다시 원팀 정신으로 뫼뫼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 지사는 경기지사직 유지 논란에 대해서는 “제가 선거운동에서 좀 유리함을 확보하겠다고 도지사직을 던지면 무책임하다는 비난이 더 클 것”이라며 “(사퇴 시점은) 경선 결과를 봐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대권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는 이날 이재명 경기지사가 ‘네거티브 중단’을 선언한 데 대해 “늦었지만 환영한다. 그런 다짐이 말이 아닌 실천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서 이같이 언급하고 “저는 지난 7월 19일 네거티브 자체를 포함한 ‘경선 3대 원칙과 6대 실천’을 제안했다”며 “이재명 후보께서 저의 제안에 응답해 주셨다. 감사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 본선 경쟁력을 위해 정책과 자질 검증에 집중합시다”라며 “그것이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를 잇는 4기 민주정부를 만드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실력과 정책에 대한 논쟁에 집중하고 다른 후보들에 대한 네거티브적 언급을 하지 않겠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양향자 탈당 ‘광주 서구을’ 광주시당서 직접 관리

민주, 사고위원회 확정...내년 지방선거 새 변화 모색 관심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혐의 등으로 당으로부터 제명된 뒤 탈당한 양향자 의원의 지역구인 광주 서구를 지역위원회를 사고위원회로 확정했다.

민주당은 특히 사고 지역위원회의 경우 위원장 직무대행을 임명해 지역위원회를 관리하도록 하지만, 광주 서구를 지역위원회에 대해서는 직무대행 없이 광주시당이 내년 지방선거 이후까지 관리하도록 해 주목된다.

이는 중앙당이 양 의원의 탈당으로 인해 내년 지방선거에 나설 서구를 선거구 내 출마 예정자들의 합력투기가 극에 달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지역구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기초단체장과 광역·기초의회 출마예정자들이 결집했던 관행에서 벗어나 광주시당이 중심이 돼 ‘광주 서구을’에서 새로운 정치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을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6일 오전 최고위원회를 열고 지역구 의원이 맡는 지역위원회 위원장직이 공석이 된 광주 서구을, 서울 강남구병, 부산 동래구, 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 등 4곳을 사고위원회로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사고위원회 4곳 중 3곳은 직무대행을 임명했지만, 광주 서구를 지역위원회는 직무대행을 임명하지 않고 내년 대선에 이어 지방선거까지 광주시당이 관리할 예정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최근 서구를 일부 정치인들이 비상대책위를 꾸릴 움직임을 보이는 등 지방선거 출마예정자들 사이에서 권력 다툼이 심한 상황이다”면서 “사고 수습과 특정 세력이 지역위원회를 장악하는 것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광주시당이 직접 관리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상 대권 주자가 결정되면 각 지역위원회를 대선 체제로 변경하면서 공적인 지역위원장을 채우는 게 관행이지만, 서구을의 경우에는 내년 지방선거 이후까지 광주시당이 직접 관리하게 될 전망이다.

민주당 지지율이 높은 광주지역 특성상 대선에

서의 지역위원장의 역할이 특별히 요구되지 않고, 서둘러 지역위원회를 꾸릴 경우 내년 서구를 지방선거의 관세가 요동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민주당 다른 관계자는 “서구를 출마예정자를 중심으로 지역위원회를 장악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어 지방선거 이전에 서구을에 특별한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내년 지방선거의 지형 변화도 불가피해졌다.

서구갑과 서구을 지역구의 기초단체장과 광역·기초의회 경쟁에도 큰 변화가 예상되며 광주시장 선거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한편 민주당 광주시당은 오는 11일 송갑석 시장위원장 등이 참석해 서구을 운영방안 등을 논의하는 첫 회의를 열 계획이다.

민주당 광주시당 관계자는 “현재 새로운 사무국장을 서구을에 배치하지 않고 광주시당에서 직접 일선 사무를 대행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으며, 당원 모집·관리 등 시급한 업무가 많아 11일 회의 이후 구체적인 운영 방안이 나올 것”이라며 “지방선거 출마예정자들이 혼선을 빚지 않도록 가급적 이른 시일 이내에 지역위원회를 정상화 하겠다”고 설명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이재명 25%, 윤석열 19%, 이낙연 11%

한국갤럽, 정치지도자 선호도 조사

야권의 유력 대선주자로 꼽혀온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지지율이 본격적인 정치 행보를 시작한 뒤 처음으로 10%대로 떨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잇단 설화와 국민의힘 지도부와의 마찰 등으로 중도층은 물론 보수층에서도 적지 않은 유권자가 윤 전 총장 지지 대열에서 이탈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갤럽이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차기 정치지도자 선호도를 묻는 결과 이재명 경기지사가 25%를 기록하며 1위에 올랐다. 한 달 전보다 1%포인트 오른 박스권 보합세였다.

반면 지난 7월 1일 조사 때 25%를 기록하면서 이 지사를 앞섰던 윤 전 총장은 이번에는 19%를 기록했다. 한 달만에 6%포인트가 빠지면서 2위로

내려앉은 것이다. 지난 3월 4일 사의를 표명한 윤 전 총장은 같은 달 11일 조사에서 지지율이 24%로 치솟은 후 줄곧 20%대 초중반을 오가다가 5개월 만에 10%대로 내려간 것이다.

갤럽 관계자는 “출마 선언 후 신상과 발언 등에 대한 본격적인 검증이 시작된 영향이 있다”며 “국민의힘 입당으로 중도층 지지세에도 변화가 있고, 최재형 전 감사원장 등 당내 경쟁자들에게 지지가 일부 분산되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는 5%포인트 오른 11%로 집계됐다. 3월 이후 처음으로 두 자릿수를 회복했다. 최재형 전 원장은 2%포인트 오른 4%였다.

이번 조사의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갤럽이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연합뉴스

안철수 “국민의힘과 통합 이번주 숙고 후 입장 표명”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8일 국민의힘과의 통합이 결렬 기로에 선 가운데 이번 주 숙고의 시간을 가진 뒤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르면 이번 주 내로 합당이나 독자 행보로 가느냐의 최종 결론을 내리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안 대표는 이날 SNS를 통해 “그동안 통합 관련해서 많은 분의 다양한 견해를 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는 30일부터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자 접수가 시작되는 만큼 안 대표가 ‘경선 버스’에 탑승하려면 늦어도 경선 시작 1~2주일 전에는 합당 절차를 시작해야 한다는 게 국민의힘 측의 주장이다. 그러나 양측의 거친 연사로 감정 대립까지 얹히면서 안 대표가 합당하지 않고 국민의당에 머물며 제3세대 후보로 독자 출마할 가능성도 남아있다. /연합뉴스

장성 토지 (매매 분양)	상가매매 (상무지구)
광주에서 20분(6M도로접) 장성댐 (호) 2분, 장성 IC. 5분 토지평수 (150, 200, 500, 1800) 전원주택, 창고, 투자적합 010-6670-9800	1) 감정가(시세) 9억 매매가 6억 3천(용 4억) 2) 월수익 300만 (보4천) 3) 평수 140평, (전용 100평) ● 6층 평수 80평 매가4억5천(용 2억6천) ● 7층 평수 60평 매가 2억 3천 (용 9천) (사무실 리모델링함, 배, 유출, 모든업종가능 즉시입주 시비없음) 010-6670-9800

모던 슬라브목상 칼라강판 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아파트, 빌라, 원룸, 주택, 상가건물, 대형빌딩 등(슬라브 목상) 시공

옥상지붕공사

슬라브 주택, 데스리 및 한옥 등은 칼라강판 지붕공사

옥상 스틸방수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스틸방수시공모습

철제시공모습

옥상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무료견적

디자인 등록 제30-0934833호 제30-0949873호 특허청

광주·전남 같이 하실 분 모집합니다.

062)531-3530, H. 010-9229-3530